

사상은 혁명적당의 위력한 무기

백 영 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고 그에 의거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이 땅위에 통성변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드림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들을 이룩하며 새로운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길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귀중한 성과들은 사상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상이 혁명적당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사상이 없으면 당이 태어날수도 없고 존재할수도 강화발전할수도 없으며 사상을 떠난 당사업과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에 있어서 사상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원래 혁명적당은 사상을 무기로 하여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또 유일한 무기도 사상이다.

혁명적당은 사상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다.

사상이 혁명적당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상이 없으면 당이 태어날수 없기때문이다.

당은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조직체이다. 당은 일정한 계급과 사회적집단 또는 사회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당의 성격과 투쟁목적,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방향이 규정되는것으로 하여 사상이 없으면 당이 태어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에게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을 벌리시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사업도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속에서 참다운 혁명가들을 키워내고 기층당조직을 꾸리는 방법으로 아래에서부터 기초를 튼튼히 쌓아나가시였다.

우리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마련되고 공고화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혁명전통이 마련됨으로써 해방후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이 제때에 창건될수 있었으며 창건첫날부터 새 조국건설을 향도하는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우리 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 전투적참모부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사상이 혁명적당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사상이 없으면 당이 존재할수 없기때문이다.

혁명적당이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지 못한다면 그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주의와 같은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비롯한 위법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할수 없게 되고 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게 되며 당이 대중으로부터 리탈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 퇴물행위를 비롯한 부정적현상을 낳는 사상적근원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혁명적당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것이 아니라 낡은 사상잔재와 부르조야사상에 기초하여 생기는것이기때문에 당이 사상사업에 힘을 넣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린다면 능히 극복할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사상이 변질될 때 혁명적당도 사회주의도 변질되고 자기의 존재를 끝마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러 나라들에서 집권당들이 붕괴되고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진것은 당이 당사상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지 않았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각성을 가지고 2중3중의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지 않은데 있다.

결과 온 사회에 부정부패행위가 만연되고 적지 않은 군중이 정치적각성이 무디어져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속아넘어가 당과 정부를 반대해나서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나라들의 당안에서 배신자들이 나오고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와해된것도, 민심이 변한것도 바로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사상이 변질되면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되고 수십년의 발전과정을 거쳐온 당도, 사회주의제도도 허물어진다는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사상사업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사상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첫시작부터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왔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왔다. 사실상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존엄떨치고 당과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게 된것은 사상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온 빛나는 결실이다.

사상이 혁명적당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사상이 없으면 당이 강화발전할 수 없으며 사상사업을 떠난 당사업과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혁명적당의 불패의 공고성과 위력,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성과는 당을 이루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결속시키며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을 이루는 군중을 당의 두리에 얼마나 튼튼히 묶어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건설의 기초이고 당사업의 기본이며 사상을 무기로 하는 혁명적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혁명적당은 사람과의 사업,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할수 있다.

혁명적당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옳은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마련하는것과 함께 그것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당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혁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은 최고뇌수이고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당이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적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혁명적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근본요구이며 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계승해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하여왔으며 이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한 토대를 가진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는 위대하고 권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우리 혁명에서는 사상사업이 언제나 첫째가는 중대사로 나서고 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사상사업의 위대한 전통이 마련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오면서도 자기의 기발에 승리만을 아로새길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사상론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반드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구호에도 어려여있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해나가도록 하는데서도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오늘 사상중시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천만군

민은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었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사회주의신념을 억척불변의것으로 간직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억세계 투쟁해나가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오늘의 현실이다.

혁명적신념과 도덕의리로 굳게 뭉치고 사상의 힘으로 더욱 백배해진 수령, 당, 대중의 위대한 혼연일체,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어 우리 당과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양양하며 주체의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다.